

KIA 타이거즈 92년생 7인의 유쾌한 수다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에서 1992년생 원숭이 띠는 대세로 통한다. 일단 숫자로 압도를 한다. 홍건희·박준표·한승혁·이준영·유창식·김명찬·박동민(이상 투수), 김호령·오준혁(이상 외야수) 등 미국 에리조나 캠프 38자리 중 9자리를 ‘잔나비’들이 점령했다. 대만 캠프에서 칼을 갈고 있는 최현정·김지훈(이상 투수), 내야수 백세웅까지 12명의 원숭이 띠 동기가 2016시즌을 버리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대기지만 팀을

이끌어갈 주요 자원으로 기대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원숭이는 제주 땅고 민첩성 넘치는 동물로 일컬어진다. 사고성도 빼놓을 수 없다.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지닌 원숭이, 병신년(丙申年) 그들의 해가 밝았다. 푹푹 튀는 재능으로 올 시즌을 이끌어 갈 ‘호랑이 군단’의 원숭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92년생 원숭이 띠 동갑 선수들의 솔직담백 유쾌한 수다. 스프링캠프에 앞서 홍건희·박준표·한승혁·유창식·

박동민·최현정·김호령 등 7명의 친구가 광주일보를 찾았다. 유니폼을 벗은 이들은 평범한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카메라가 어색한 이들. 눈과 입이 따로 노는 모호한 표정에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진땀을 흘렸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조명이 꺼지자 ‘잔나비들의 수다’가 시작됐다.

“재주많은 원숭이띠들의 전성시대 기대하세요”

■ 올 시즌 포부는?



수다의 스타트는 사이드암 박준표가 끊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선함이 묻어나는 박준표는 알고 보면 92동기들의 행동대장이다. 친구들을 이끌어 분위를 주도하는 그는 농담도 곧잘 하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다. 정신없던 수다의 시간이 지나고 야구 이야기가 나오자 박준표의 눈빛이 달라진다.

‘60경기 3점대 평균자책점’을 올 시즌 목표로 내세운 박준표는 “몸관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다. 기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군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간절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의리’로 표현했다.

박준표는 “야구 외적으로도 도와주고 밥도 먹고 친구들이 많은 힘이 된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으니 자극도 된다. 아프지 말고, 의리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박준표가 전면에 나서서 행동대장이라면 우완 강속구파 한승혁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실세다. 프로필상 생년월일은 1993년 1월3일이지만 실제 생일은 1992년 12월28일, 한승혁도 원숭이가 맞다. 그는 친구들이 인정하는 ‘의지대장’이기도 하다. 한번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해내고 마는 독한 한승혁 이란다.

한승혁은 “안 아프고 시즌을 보내는 게 우선 목표다. 마운드에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투구폼을 바꿨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외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진중한 모습으로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승혁이 허를 내두르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이자 ‘고집왕’이다. 순박한 표정과 달리 야구 욕심과 고집이 어마어마하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은다.

홍건희는 “플타임을 뛰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첫 선발승도 하고 싶다. 1군 경기를 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1군 선수들을 많이 상대했다. 어려움도 느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부족하고, 내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얻

선발후보·강속구·사이드암 등

다양한 투수 여기 다 있다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마운드 책임지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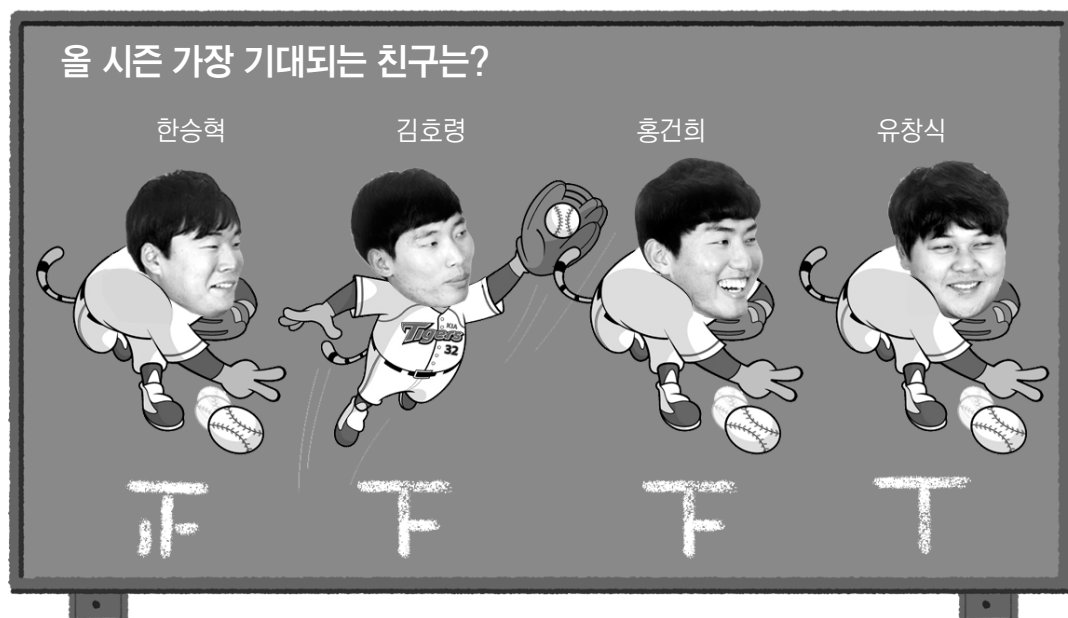
었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는 홍건희는 92동기들을 “다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개성 넘치는 친구들, 늘 진지한 홍건희와 달리 좌완 최현정은 92라인의 ‘해맑음’을 담당하고 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최현정이다.

친구들 모두 멋진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뛰면 좋겠다는 최현정은 “우리가 KIA의 중심이 되는 것을 상상하곤 한다. 힘들 때도 축하할 때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좋은 모습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KIA의 중심이 되는 상상. 최현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최현정의 이야기에 92동기들은 “선발후보·강속구 우완·좌완·사이드암 등 다양한 투수가 여기 다 있다. 우리가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본다. 호령이 최고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불랑공세를 넘어 실력에서도 92 원숭이들이 대세가 되는 즐거



운 상상을 했다.

표정을 보면 가장 개구질 것 같은 좌완 유창식. 친구들의 평가는 어떨까? ‘유창식=차’였다. 그는 소문난 자동차광이다. “아빠 같다”는 말도 나왔다. 아빠처럼 든든하다는 의미는 아니란다. 아빠처럼 묵직하게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이 자리에서도 그는 가끔 한 마디 끼어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방긋방긋 웃고만 있었다. 그래도 야구 질문에는 또박 또박 답변을 한다.

유창식은 “3점대 평균자책점을 찍고 싶다. 보직은 상관없이 적극적인 피칭을 하고 싶다. 변화구 위주가 아니라 자신있게 직구 승부를 하고 싶다”며 “지난해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이나 준비가 덜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내 실력이다. 기복 없이 하는 게 목표다”며 올 시즌 거점있는 직진을 다짐했다.

정식 선수로 39번이라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새출발을 하게 된 사이드암 박동민도 한계 없는 질주를 꿈꾸고 있다.

박동민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고 준비를 많이 했다. 팀의 위기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친구들이 있어서 훈련이 재미있다. 힘든 걸 못 느끼겠다. 휴식을 할 때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활짝 웃었다.

박동민은 92친구들이 꼽는 ‘성실대장’이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박동민. 하지만 그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김)호령이를 보면 연습을 하고 싶어진다”며 김호령을 가리켰다. 그만큼 김호령은 알아주는 연습벌레다. 경기장과 집, 집과 경기장이 그의 생활무대다. 전형적인 원숭이띠와는 다른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진지남’이기도 하다.

김호령은 “다치지 않고 1군에 있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출루율을 높이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 투수들 볼 배합에 대한 대처들이 부족하단다 그것을 키워야 한다”고 올 시즌을 말했다.

이날 자리한 유일한 야수. 수비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기록지에 적히는 피칭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투수 친구들은 “내 공 좀 잘 잡아주라. 호령이 수비는 최고다”며 아부성 칭찬 릴레이를 펼쳤다. “내 공은 잘 안 잡아주는데”라는 농담에 “오해다. 모든 공에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며 속스러운 표정을 짓던 ‘진지남’.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보는 친구는 어떨까?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친구를 꼽아주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친구들의 칭찬 릴레이가 전개됐다.

‘진지남’이 꼽은 올 시즌 기대주는 한승혁·홍건희 듀오다. 이유는 “마음 각오를 한 것 같다”였다.

유창식도 “기본 스피드가 있는 선수니까 컨트롤만 잡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한승혁과 홍건희의 이름을 말했다. “내 공은 잘 안 잡아주더라”며 김호령을 당황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유창식은 김호령의 이름도 언급했다. 수비는 워낙 좋은 선수니까 방향이만 더 잘 치면 최고의 활약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박동민 역시 김호령의 수비에 좋은 점수를 줬다. 박동민은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끈기가 있다. 수비에서는 최고였다. 타격만 더하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며 김호령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박준표는 유창식·한승혁에게 힘이 왔다. 박준표는 “선수들이 보는 느낌이 있다. 마무리 캠프에서 공이 좋았고 마음먹으면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며 두 친구의 활약을 예고했다.

‘모범생’ 홍건희는 역시 흐트러짐이 없었다. “유창식이 자기를 찍어주라고 나를 보고 있다”면서도 유창식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홍건희. 그는 “우리 동기 전부가 기대된다. 동기라서 잘 아는데 자주 보니까 각각의 자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것을 채우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92동기들의 전성시대를 꿈꿨다.

최현정과 한승혁도 “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 할 것이다”는 말로 원숭이띠, 원숭이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